



“새로운 경영환경을 위한 디딤돌 마련해야”

丙戌年 새해를 맞아 포장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경쟁력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장인 및 포장업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포장산업은 장기간이 어려움과 난관속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전반의 위기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유가의 폭등으로 내외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경영환경에서도 불굴의 경영의지로 국가포장산업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포장인이 있기에 꾸준한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장인의 모든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그 힘과 능력을 한데 모아 단결하고 협동한다면 지금의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2006년 새해에도 세계는 급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은 계속 될 것입니다. 변화는 위기를 타계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도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초강대국이 지배하고, 세계의 경영환경은 초일류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초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세계 초 일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초일류 서비스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초일류 기업은 변화에 대처하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도전과 변화에 우리 포장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큰 바위와 같은 난관을 털어버립시다!

큰 바위와 같은 난관을 털어버리면 우리에게겐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장인 및 포장관련업계 여러분!

힘찬 새해에 힘찬 발걸음으로 위기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포장인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맡은바 소명을 다하기를 바라며 포장협회 김선창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ko



김 순 재

한국지합조합공업협동조합 이사장